

# 學術理論과 情報交換

## 生産性 向上 밀거름 되기를

(高麗醫大予防醫學教室 教授) 車 喆 煥



第1回 韓日産業保健 學術集談會는 1984년 서울의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된 이래 第2回 學術集談會는 日本國 京都市에서 개최 되었는데 첫날인 85년 4월 5일에는 교토시 호리가와회관(日本 京都市 堀川會館), 이틀째인 4월 6일에는 財團法人 京都工場保健會에서 개최되었다.

이 학술집담회는 韓日 양국간의 산업보건 관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의 산업보건에 관한 제반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고 學術的인 理論과 기술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양국의 산업보건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한 것이며 每年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게 되어 있다.

이번 학술집담회에서 우리나라 參加者는 각 대학 예방의학교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원,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특수검진 기관장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부의 근로기준국장이 양일간 참석하여 본 학술집담회가 더욱 의의가 있어 보였다.

또한 日本의 京都新聞 4월 6일자 기사중 한일산업보건 학술집담회 개최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여 일본에서의 산업보건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학술집담회 첫날인 4월 5일에 발표된 主題 내용은 “職業性 疾患의 豫防對策”이었으며 제 1부, 제 2부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제 1부 집담회의 座長으로 우리나라측에서 文榮漢 教授(延世醫大), 일본측에서는 三浦武夫(日本産業衛生學會 近畿地方會長), 瀨良好澄(國立療養 近畿中央病院 名譽院長) 등이 맡았고, 제 2부 집담회의 座長으로 우리나라측에서 本人과 일본측에서 佐野晴洋(京都大學 醫學部教授), 堀口俊一(大阪市立大學 醫學部教授) 등이 맡아 진행하였다.

이날 발표된 演題數는 우리나라측에서 9편, 일본측에서 6편 이었고 연제 발표 내용을 보면 産業災害 2편, 重金屬中毒 4편, 農藥中毒 및 溶化비닐중독 2편, 頸肩腕障害 1편, 직업·병관리대책 2편, 本人이 발표한 “Ames法을 利用한 突然變異原性의 環境과 人體 monitoring” 1편 등 총 15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각 연자들은 충분한 자료를 제시 하였고 진지한 태도로 발표에

임했으며 연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 양국 참가자들은 열띤 질문과 토의가 진행되었다.

연제 발표는 원래 영어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바, 동시 통역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열띤 토의 내용이나 추가설명에 대하여 양측 번역을 하는 등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가자 모두가 시종일관 열심히 학술집담회에 참여하는 좋은 분위기를 보여 주었고, 일본 운영위원측에서 학회장소인 호리가와회관의 식당에서 도시락을 준비하여 계획된 스케줄대로 순조롭게 학회 진행을 추진했던 점에 본인은 매우 감명 깊게 느꼈다.

학술집담회가 모두 끝난후 學術集談會 總會가 있었는데, 日本측 齊藤 一 代表委員으로부터 점심시간에 별도로 열린 運營委員會會議에서 결정된 일본측의 會則에 관한 약간의 수정이 있었음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86년도 제 3회 학술집담회의 다음 개최지는 우리나라 釜山에서 개최한다고 선언하였다.

總會가 끝난후 바로 양국 참가자를 위한 歡迎夕食會가 和氣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양국 참가자들간의 개별적인 인사교류가 정답게 이뤄진 것은 큰 보람의 일면이기도 하였다.

학술집담회 이틀째인 4월 6

일에는 財團法人 京都工場保健會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主題내용은 “中小企業에 있어서의 産業衛生管理 制度和 活動”이었다.

본 主題에 대한 座長으로 우리나라측에서 李昇漢教授(가톨릭 醫大), 일본측에서는 館 正知(中央勞働災害防止協會 勞働衛生檢査센터所長)氏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主題내용에 관련된 4명 演者의 發表內容을 各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演者인 戶田弘一(全國勞働衛生 團體連合會 技術專門委員長)氏가 발표한 “全國勞働衛生團體連合會의 活動”의 연제 내용은 첫째 일본의 산업보건관리제도에 관한 소개가 있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노동안전 위생법, 진폐법, 작업환경 측정법 및 관련법규가 규정되어 있었으며 사업주가 일차적인 법적 책임을 지고 産業醫와 위생관리자가 실무를 담당하게끔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산업의와 위생관리자의 배치규정, 일상의 위생관리업무의 내용으로서 건강관리, 환경관리, 작업위생관리의 업무등이었으며 둘째 산업보건기관의 활동양상은 全國勞働衛生團體連合會 산하 산업보건기관수가 69個로 이들 기관의 활동상항으로는 건강관리사업, 환경관리사업, 기술직원의 연수

활동, 분석기술의 精度관리 활동, 공동 연구사업등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두번째 演者인 東田敏夫(日本産業衛生學會 中小企業衛生問題研究會會長)氏의 발표 제목은 “일본산업위생학회 중소기업위생문제 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이며 내용은 중소기업위생문제 연구회가 1963년에 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활동해 왔다고 하며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 실태와 관련요원 및 그 사회의학적 검토, 건강진단 및 사후조치, 유해환경의 감시 및 개선, 중소기업 특유의 결함인 보건관리 조직화와 협동화에 관하여, 또한 산업보건기관 및 産業醫의 역할, 하청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및 모기업 책임, 정부의 법적 및 행정상의 책임과 역할, 기타 등 이었다.

세번째 演者는 우리나라측의 南澤昇教授(순천향의대) 로서 발표제목은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보건 활동”이며 발표요지는 한국에 있어서의 산업보건사업의 당면과제로 사용자들의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무관심, 명목상의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배치, 형식적인 근로자 건강진단사업, 전국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기업의 산업보건, 높은 재해율과 직업병에 대한 대책등을 지적하

고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기본사업내용을 발표하였다.

마지막 演者인 Malinee, W. 教授(태국 마히톤대학)는 태국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작업조건, 의료, 예방대책 등이 발달된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자신들이 지방 노동조합의 원조없이 이들 조합원의 의료, 환경문제에 관한 당면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조건과 근로자 건강을 보다유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이나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치료에 대한 방도를 마련키 위해선 민간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演者들의 발표가 끝난후 이어서 각 연자들이 提起한 산업보건관리에 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양국 참가자간에 2시간이상의 토의를 가졌다.

토의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직까지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산업보건관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제시하였는

데 그 이유로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정부의 行政力이 못미치고 있거나 산업보건기관에서도 손을 쓰기가 어려우며 특히 기업체 자체내에서의 자발적인 보건관리가 미흡한 상태임을 자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산업보건관리 문제는 그 지역의 산업보건전문기관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실효를 거둘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각 단체간의 협동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사례를 보고한 일본측의 한 토의자로부터 들은 증례보고는 본인에게 매우 감명 깊게 느껴졌다.

또한 戶田弘一(全國勞働衛生團體聯合會技術專門委員長)氏는 산업보건요원들이 기업주나 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관리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환경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를 기업체로 feed-back 시켜 활용되는 重要性이 강조되는 토의가 있었다.

오후 2시경 모든 공식적인 학술집담회가 끝난후 京都工場保健會의 건강진단시설 등을 견학하였다.

상기한 제2회 한일산업보건 학술집담회를 마치고 난후 본인이 느낀 점을 종합해 보면 일본에 있어서의 산업보건 관리사업은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또는 지역사회단체의 공동노력으로 본 궤도에 올라 있음을 느꼈으며 이는 지역조직 단체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의 성의있는 지원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공포 되었음으로 앞으로 산업보건관리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한일산업보건 학술집담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양국간의 학술적 이론과 기술정보 교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쾌적한 작업환경 생산능률 향상된다.